

2008년도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

* 이 Box안의 내용은 강창규 의원실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기재 순서를 앞으로 놓은 것이니 참고하세요.

7. 개별 의원 총괄 평가

전체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통합 분석한 결과

가장 우수한 10명의 의원은

강창규 김성숙 김소림 김용재 신영은 윤지상

이근학 이명숙 이재호 정종섭 의원(가나다순)이다.



강창규



김성숙



김소림



김용재



신영은



윤지상



이근학



이명숙



이재호



정종섭

- **강창규의원**의 경우 활발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현장성이 매우 뛰어났다는 점
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 김성숙의원은 분석적인 준비를 통한 철저한 내용으로 세심하게 지적해나가는 모습과 함께 동료 의원들로부터 고루 좋은 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소림의원은 충실한 준비에 따른 집요한 질의와 함께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의원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평이다.
- 김용재의원은 새로운 의원 상을 제시했다는 좋은 평을 받음은 물론 전반적인 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는 평을 얻었다.
- 신영은의원은 다선 의원답게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와 동료의원간의 화합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 윤지상의원은 위원회를 무리없이 이끌었다는 점과 동료의원들로부터의 신뢰,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 이근학의원의 경우 문제 제기에서 멈추지 않고 해답과 대안까지 제시하려는 자세와 다선의원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넓은 시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이다.
- 이명숙의원은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 차분한 현황 파악을 통해 문제 제기와 제안을 하는 등의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차분함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한다는 평이다.
- 이재호의원은 출석률과 회의 현장에서의 성실도, 시정질의의 적극적 활동 등에서 골고루 좋은 평을 받았다.
- 정종섭의원은 몇몇 사안에 편중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모든 사안에 있어서 골고루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며 맡은바 일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I. 개요

□ 모니터의 목적

- 시정의 감시, 조례의 제정, 예산 심의 의결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의회 활동이 시민들의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에서,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 모니터를 통해 의정 활동의 수준을 높이는데 일조하며, 지역사회 제반 행정.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적 모니터의 사례를 만들어가고자 함.

□ 주관

- 인천YMCA 의정참여단, 시민위원회

□ 모니터 점수 산정 방법

○ 의정 활동 현장 모니터

- 정해진 평가표에 의해서 현장에서 직접 참관하여 체크표 작성
- 모니터 체크 리스트 : 회의 참여 적극도, 타인 발언 경청도, 타인 대하는 태도, 사전 자료 준비 상태, 해당 영역 이해 수준, 회의 진행 절차 준수, 정책적 내용 제시도, 시민 의사 반영도

○ 출석 평가

- 전체 회의일수 대비 출석일수 비율
- 공무로 인한 결석도 결석 표시

○ 회의록 분석

- 정해진 모니터 쉬트에 의거하여 회의록 분석 체크
- 회의 내 질의수를 체크하여 질의의 수위에 따라 단순 확인성 현황파악과 구체적 확인성 현황파악, 단순 일회성 문제 제기과 구체적 논리성 문제 제기, 단순 일회성 대안 제시와 구체적 논리성 대안 제시를 일정 비율로 점수 배정

○ 시정질의 평가

- 평가 대상 : 2008년도 시정질문관리현황
- 평가 방법 : 적극적 참여도에 따른 점수 배정

○ 동료 의원간 평가

- 평가 대상 : 전체 의원
- 평가 방법 : 동료 의원 중 의정활동 우수의원 추천 방식

□ 모니터링의 한계

- 전체 회의를 전부 참관하여 모니터링 할 수 없는 시간적, 인적 자원의 제한으로 인한 평가의 질적 평가의 한계
- 출석 일수 중 공무로 인한 결석에 대한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한 공무로 인한 결석을 결석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데이터의 편차
- 회의록 모니터링을 함에 있어서 현장 분위기와 발언의 어투, 뉘앙스를 반영하지 못

한 채 문자적 해석에 그침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결과의 오류

II. 분석결과

□ 전반적 평가

1. 평가 방법의 다양화와 평가 확대

- 이번 의정 모니터링은 회의록 분석, 현장 모니터, 출석 통계, 동료 의원간 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평가를 통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한층 높였다.

2. 의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진지함

- 2008년도 시의회 의정활동의 가장 큰 변화라면 의회 민주주의의 정착화라고 할 수 있다. 재선 및 다선 의원들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련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초선의원들도 지난해에 비해 한층 원숙한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인천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는 평이다.

- 의원들이 공무로 인한 결석이라고는 하지만 빈번하게 결석하는 의원들이 몇 몇 눈에 띈 것은 불만이라 하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임위 활동이 주어진 일정과 주제에 충실하였고, 의원들의 태도도 진지한 편이었다.

-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질의와 질책이 있었고, 그에 상응하는 준비 자세를 보여준 점은 좋은 평을 받았다.

3. 의원들의 자세 및 태도

- 문제점만을 들추기보다는 문제 원인과 현황에 대한 논리적 추궁이나, 대안 제시를 위한 질의 내용이 많이 있었으나, 세밀한 준비를 통한 깊이 있는 이해의 모습이 아쉬웠고, 중복해서 질의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다. 즉석에서 자료만을 보고 하는 듯한 사전 이해가 부족한데서 비롯되는 엉뚱한 질문들이 있었고, 구체적인 지적보다는 전체적 현황만 파악하고 마는 의원들의 모습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 다른 의원의 발언 시간에 집중하여 듣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의원이 많이 있었으며, 회의 시간에 멍한 자세나 불필요한 행동으로 회의 진행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의원도 있었다.

- 일부 의원의 경우 피감사자에 대해 죄인 취급을 하거나 인격적으로 하대하는 자세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무조건 자료부터 요구해 놓고 보자는 자세로 너무 많은 자료 요구를 하는 점은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커다란 문제를 포착하여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위원들도 많이 있었으나, 행정 처리에서의 사소한 실수를 계속적으로 지적하거나 참가자의 자세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특정 시의원의 경우 치밀한 준비와 논리적 근거를 통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 자신의 선거구와 관련된 문제만을 집중 추궁하거나, 사전에 약간의 이해만 있었어도 하지 않았을 단순한 질의로 시간을 허비하는 등 아직도 극복되어야 할 모습이 많이 있었다.
- 의사 진행에 있어서 시간에 쫓기어 발언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하거나, 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모습이 눈에 보였으며, 몇몇 의원의 발언이 너무 길어져서 결과적으로 다른 의원의 충분한 발언 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원인도 되었다.

III. 분야별 평가

1. 출석 평가

□ 분석 결과

- 2008년 전체 출석률은 93.5%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4년간 출석율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저조했지만 절대적 수치는 낮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결석 사유를 보면 공무로 인한 사유가 가장 많아 대부분의 의원들은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했다고 할 수 있다. 공무로 인한 결석도 없이 100% 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강문기, 고진섭, 박승희, 이근학, 윤지상 의원 등 5명으로 가장 성실한 의원으로 평가됐다. 이에 반해 지정구, 유천호 의원은 공무로 인한 사유라고는 하지만 각각 15일과 11일을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출석률	98.6%	95.8%	95.7%	93.5%

<표 1> 출석률 변동 추이(2005년~2008년)

- 공무로 인한 결석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일정 사유가 있어서 결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았을 때 93%를 상회하는 출석률 자체를 문제시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 행사 참석의 경우 과연 시의원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회의 참석보다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내용	위원회 및 회의참석	사업 유치활동	행사 참석	기타
횟수	7	6	15	4

<표 2> 공무로 인한 결석 사유

2. 시정질의 모니터링

시정질의를 총 135건을 하였는데 많은 질의를 한 의원들은 정종섭(17건), 박승희(12건), 신영은, 유천호(10건)의원들로서 질의건수가 평가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질의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 의원 발의 조례 모니터링

2008년 의원 발의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39개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처리되었으며, 인천시민을 위한 좋은 조례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 인천광역시 시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근학 의원외 6) : 시민생활과 관련한 전문분야의 무료상담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며, 시민들이 지금보다는 더욱 편리하게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정종섭 박승희 의원외 18) :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할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짐.
- ▶ 인천광역시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이명숙 의원외 19) :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 시점에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재 의원외 6) :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차별을 배제하며, 시설 이용료에 있어서 동반 감면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됨.

4. 현장 모니터링 결과

상임위원회 회의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 한 결과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의원으로는

이명숙, 지정구, 김소림 의원이 선정되었다.

- 이명숙의원의 경우 세밀한 사전 준비로 필요한 질문을 적절히 함으로써 회의의 질을 끌어 올렸다는 평을 받았고,
- 지정구의원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회의진행 및 절차를 준수하는 면에서 우수한 평을 받았으며,
- 김소림의원은 회의에 임하는 태도와 시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자세에서 우수한 의원으로 평가하였다.

5. 회의록 모니터링 결과

일반에 공개된 의회 회의록을 모니터링 한 결과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의원으로는 이근학, 정종섭, 이명숙의원이 선정되었다.

- 이근학의원의 경우 문제 제기에서 멈추지 않고 해답과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 정종섭의원은 자신의 선거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사전 조사도 열심히 하고, 질의할 것을 미리 충실히 준비하는 모습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 이명숙의원의 경우 많은 질의를 열심히 준비하는 성실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6. 동료 의원 평가

동료 의원간에 우수 의원을 추천받은 결과로는 김성숙의원이 가장 많은 동료 의원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고, 다음으로 이근학, 김용재, 윤지상, 강창규, 박승희, 성용기 의원 등이 추천을 받았다.

- 김성숙의원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재선의원 다운 연륜으로 폭 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과 시정 질의 때 날카롭고 예리한 지적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 김용재의원은 젊고 패기있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정책제안을 함에 치밀하고 항상 공부하는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평을 얻었다.
- 윤지상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타 위원회와 달리 제1, 제2 부의장, 운영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등 대다수의 의원들이 보직을 맡고 있는 위원회의 장으로서 특유의 유연함과 합리적 사고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면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 이근학의원은 제1부의장을 맡고 있지만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모범을 보이고 있고, 회의 출석을 뿐만 아니라 질문의 깊이에 있어서도 연륜이 묻어나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모범적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7. 개별 의원 총괄 평가

전체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통합 분석한 결과

가장 우수한 10명의 의원은

강창규 김성숙 김소림 김용재 신영은 윤지상

이근학 이명숙 이재호 정종섭 의원(가나다순)이다.

- **강창규의원**의 경우 활발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현장성이 매우 뛰어났다는 점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 **김성숙의원**은 분석적인 준비를 통한 철저한 내용으로 세심하게 지적해나가는 모습과 함께 동료 의원들로부터 고루 좋은 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소림의원**은 충실한 준비에 따른 집요한 질의와 함께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의원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평이다.

- **김용재의원**은 새로운 의원 상을 제시했다는 좋은 평을 받음은 물론 전반적인 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는 평을 얻었다.

- **신영은의원**은 다선 의원답게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와 동료의원간의 화합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 **윤지상의원**은 위원회를 무리없이 이끌었다는 점과 동료의원들로부터의 신뢰,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 **이근학의원**의 경우 문제 제기에서 멈추지 않고 해답과 대안까지 제시하려는 자세와 다선의원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넓은 시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이다.

- **이명숙의원**은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 차분한 현황 파악을 통해 문제 제기와 제안을 하는 등의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차분함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한다는 평이다.

- **이재호의원**은 출석률과 회의 현장에서의 성실도, 시정질의의 적극적 활동 등에서 골고루 좋은 평을 받았다.

- **정종섭의원**은 몇몇 사안에 편중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모든 사안에 있어서 골고루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며 말은바 일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강창규

김성숙

김소림

김용재

신영은



윤지상

이근학

이명숙

이재호

정종섭

※ 의장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